

## 성인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ocial Capital of Adults

박 형 원

서울사이버대학교

Park hyung-won

Seoul Cyber Univ.

#### 요약

서울 강북지역 성인남녀 218명으로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이웃관계, 심리적 자본, 지역사회주거환경, 정부나 사회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인적인 심리적 자본 외에 지역사회 환경과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I. 서론

### 1. 연구목적

사회자본은 한 사회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주요요소로서 현재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회자본은 상호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이나 집단이 축적한 관계자원의 총합을 의미하며, 최근 들어 여성, 결혼이민자, 청소년, 조직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자본을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는 Hanifan(1916)에 의해 다루어졌는데, 그는 사회자본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의 실체, 예를 들면 사회단위를 구성하는 개인과 가족들간의 호의, 동료애, 동정심, 사회적 교섭 같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 사람이 이웃과 접촉하고, 이 사람들이 다른 이웃들과 접촉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사회자본이 축적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자본으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고, 공동체 전체의 생활조건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1]. 사회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사회 또는 공동체에서는 시민들의 참여 네트워크가 구성원들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호혜성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그러한 네트워크는 의사소통과 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집단행위를 통한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사회자본이 호혜적 사회관계의 네트워크에 자리잡고 있을 때 큰 힘을 발휘한다[2].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활용되는 주요 공간으로서 지역사회는 다양한 형태와 정도의 유대, 참여를 통해 신뢰와 자조(self-help)의 규범을 형성해 가는 곳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을 만들고 동원하는 비공식적 자원의 보고(寶庫)이다[1]. 최근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역의 사회

적 기업 양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하여 시민행동을 도모할 수 있고, 제한된 지리적 영역안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욕구에 보다 충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자본과 관련된 개인적 또는 지역사회요인은 무엇인지를 검증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자본 확장을 위한 지역사회발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서울 강북지역 성인 남녀 218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만족도, 이웃관계, 개인의 심리적 자본을 내용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2014년 12월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성인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 II. 연구결과 및 논의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 218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여성이 189명(86.7%)였고, 40세 이상인 응답자가 161명(72.7%)를 차지하였다. 현재 지역에서 5년이상 거주한 응답자가 141명(64.7%)였고, 지난 1년간 정부나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1명(18.8%)였다.

### 2. 사회자본에 영향미치는 요인

표 1. 일반적 특성

		(n=218)	
	구분	n(%)	
성별	남성	29(13.3)	
	여성	189(86.7)	
연령	29세 미만	7(2.8)	
	30세 ~ 39세	50(24.1)	
	40세 ~ 49세	100(44.2)	
	50세 ~ 59세	59(27.7)	
	60세 이상	2(0.8)	
현 지역 거주기간	1년미만	11(5.0)	
	1년 ~ 3년미만	32(14.7)	
	3년 ~ 5년미만	34(15.6)	
	5년 ~ 10년미만	56(25.7)	
학력	10년이상	85(39.0)	
	초졸	1(0.5)	
	중졸	8(3.7)	
	고졸	76(34.9)	
지난 1년간 지원 경험 여부	대학원졸 이상	12(5.5)	
	지원경험 유	41(18.8)	
	지원경험 무	177(81.2)	
	99만원 이하	9(4.1)	
소득	100만원 ~ 199만원 이하	45(20.6)	
	200만원 ~ 299만원 이하	54(24.8)	
	300만원 ~ 399만원 이하	42(19.3)	
	400만원 ~ 499만원 이하	19(8.7)	
	500만원 ~ 599만원 이하	25(11.5)	
	600만원 이상	24(11)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주거환경, 이웃관계, 개인의 심리적 자본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각 요인들을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3개의 모델이 선택되었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웃만족도’만이 투입된 모델 1의 설명력은 28.8%로 나타났으며,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웃만족도’와 ‘심리적 자본’이 투입된 모델 2의 설명력은 44.2%로서 역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주거환경만족도’가 추가로 선정된 모델 3의 설명력은 45.8%였다. 모델 4는 ‘이웃만족도’, ‘심리적 자본’, ‘주거환경만족도’, ‘지난 1년간 지원받은 경험유무’로 구성되며, 이 변인들이 사회자본 변량을 45.8%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웃만족도, 심리적 자본, 주거환경 만족도, 1년간 지원받은 경험유무가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심리적 자본 외에 이웃관계나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이 사회자본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1명(18.8%)에 불과함에도 사회자본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이 개인에게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 참고 문헌 ■

- [1] Putnam, R., "The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 6, No. 1, pp.65-78, 1995.
- [2] Putnam, R.,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s*, Vol. 4, No. 13, pp.35-42, 1993.
- [3] 유현숙, 광현근, 배지연, "여성의 동네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제22권, 제2호, pp.315-337, 2006.

표 2. 주거환경, 이웃관계, 심리적 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n=218)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B	β	F	유의확률	VIF		
모델1	이웃만족도	.288	.284	1.708	.537***	74.013	.000	1.000		
모델2	이웃만족도	.442	.436	1.458	.458***	72.052	.000	1.005		
	심리적 자본			.627	.400***					
모델3	이웃만족도	.458	.449	1.667	.524***	50.970	.000	1.033		
	심리적자본			.668	.426***					
	주거환경만족도			.479	.147*				.022	1.103
모델4	이웃만족도	.473	.462	1.672	.525***	40.462	.000	1.042		
	심리적자본			.655	.418***					
	주거환경만족도			.478	.147*				.021	1.105
	1년간 지원받은 경험유무			4.292	.125*				.022	1.107

\* $p < .05$ , \*\*\* $p < .001$